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나 권 수* · 김 영 주**

대진대학교

〈요 약〉

4차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구조의 혁명적 변화와 그에 따라 야기될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론의 개념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양산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로 일자리 감소다. 그런데 일자리 감소는 단지 노동시장의 축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 진보에 의해 직종의 이원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소득 격차는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실현될 삶의 편의가 모두에게 주어질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급속한 기술 발전은 사회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계층 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여, 그 결과 사회·문화적 배제라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성과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서 인적자원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2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이 요청되어 진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으로서 상생이념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오늘날에 상호 갈등과 충돌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함께 신뢰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도 상생은 사회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사회로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계층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주제어: 4차 산업혁명, 대순진리회, 종교교육, 증산, 상생

* 제1저자

** 교신저자

I.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혁신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펼쳐졌다. 최고의 지성으로 상징되는 바둑에서 인간이 기계에게 자리를 내주는 충격의 시간이었다. 알파고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주목시켰다. 그러나 이미 2, 3년 전쯤부터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구조의 혁명적 변화와 그에 따라 야기될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영역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통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¹⁾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²⁾

하지만,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개념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별도의 산업혁명으로 간주하는 근거로 속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론은 제조업의 혁신에 초점을 둔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가 2011년에 촉발시킨 인더스트리(Industrie) 4.0에 관한 논의를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에 그대로 투영했을 뿐 산업혁명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긴요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³⁾ 즉, 확립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작업가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언적 진단 혹은 인더스트리 4.0의 일방적 수용에 앞서 세계경제의 변동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산업혁명의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담당하고 있던 육체노동은 물론 지식노동의 많은 부분까지도 기계가 대신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한 분야의 혁명적 기술 변화가 아닌 여러 분야의 기술 융합에 있다. 그 결과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전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의 증대, 업무 생산성의 획

1) 광기영, 「4차 산업혁명 Industry」, 『전기저널』 (서울: 대한전기협회, 2016.4), 32쪽.

2) 김승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주요국의 혁신정책」, 『Entrepreneurship Korea』 Vol.5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참조.

3) 송성수,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STEPI Insight』 제207호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27쪽.

기적 증가, 공공부문의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생활의 편의성 등이다.⁴⁾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첫째, 노동시장의 축소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폭하여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다. 둘째, 전문 직종으로 귀속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부와 권력의 편중, 빈곤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성과를 통해 제공될 편의가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아 오히려 문화적 소외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의 혁명이 가져올 편의와 혜택은 자명하다. 하지만 미래의 고용은 고급인력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기술의 발전이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당면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을 축으로 현재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다시 말하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융합, 가상과 현실의 접목으로서 인간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혁명으로 일컬어진다. 이에 인적자원의 역량이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환이 요청되어 진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지금의 교육방식과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것이 자명하다.⁶⁾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성과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⁷⁾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을 가졌다. 개개인의 생활 전반에 침투해 우리의 삶과 분명히 함께 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한층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강렬한 기회이자 동시에 무거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교육학적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 할지, 또는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하겠다.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4차 혁명시대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4) 임호,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대응 방향」, 『부산발전포럼』 제164호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2017), 7쪽.

5) 위의 글, 10-12쪽 참조.

6)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서울: 한국정책학회, 2017), 6쪽.

7) 이주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선진화정책시리즈』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17.2), 158-161쪽 참조.

8) 한동승,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 제42호 (서울: 인문콘텐츠학회, 2016) 참조.

Ⅱ. 증산의 시대인식과 미래전망

신종교는 기존 사회와 종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근간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태동한 새로운 차원의 종교운동이다. 따라서 신종교는 기성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표방한다.⁹⁾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신종교운동에는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력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과 관련한 제반 분야의 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 후기에 대두된 대순사상의 연원으로서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은 고통에 시달리던 기층민중에게 종교적 구제를 통해 삶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조선사회에 내재된 모순이 심화되고 여기에 덧붙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충격이 가중되는 시기였다. 증산은 이러한 국내외의 형국을 백척간두에 놓인 누란과 같다고 진단하였다.¹⁰⁾ 따라서 그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증산의 이러한 기조는 동시대에 활약한 여타의 신종교사상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른바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독특한 형태의 종교운동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¹¹⁾

“상제께서 이듬해四월에 김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¹²⁾

위의 구절에서 증산의 현실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복 논리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증산은 세상 자체가 심각한 병에 들었다고 보았다. 병세문(病勢文)¹³⁾이라는 글에서 그는 충효열을 비롯한 윤리도덕이 무너져 천하가 모두 병들었으며, 인류는 자신의 도리를

9) 박규태, 「일본의 현대종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신종교연구』 제3권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0), 29쪽.

1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공사 1장 13절;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를 들면, 『전경』 공사 1장 13절의 경우 공사 1-13의 형식으로 그 전거를 밝힌다.

11) 윤재근, 「조선후기 종교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석」,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264-265쪽 참조.

12) 공사 1-2.

13) 행록 5-38,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망각한 무도병(無道病)에 걸렸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증산의 이러한 진단과 달리 그는 오히려 병세(病勢)의 원인을 우주적 범주로 확장 투영하였다. 즉, 증산은 원이라는 인간의 일상적 감정을 주시하여 그 해결의 단초로 삼았다.

증산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로 이해했으며, 욕망을 성취하지 못할 때에는 병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이와 함께 그는 인간과 자연이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초월적 세계와도 물샐틈없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고 파악하였다.¹⁵⁾ 특히 마음의 작용이 개인에서 천지의 운행으로까지 전이된다고 보았다.¹⁶⁾ 즉, 원(冤)의 작용이 한 단면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 질서의 파괴와 신명계의 착란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인간사회의 재앙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¹⁷⁾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증산은 현실의 문제를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면 과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명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한다는 종교적 논리 구조를 설파하였다. 다시 말해 원의 발생 이유를 인간 본성이 아닌 상극(相克)에 지배된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지어진다고 보았다.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원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움에 갖가지의 참혹한 재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증산은 원에 의한 인간의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신명계로부터 원을 풀어나갈 때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으로 본 것이다.¹⁹⁾

기성종교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방식에 대중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산은 역사적 사실 관계로써 원의 발생 시점과 원이 양산된 개기를 설명하였다. 예컨대 증산은 원의 발생 시점을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정하였으며, 이마두(Matteo Ricci, 1552~1610)²⁰⁾와 진묵(震默, 1562~1633)²¹⁾에 관계된 역사적 사실(史實)

14) 교법 3-24,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15)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47-149쪽 참조.

16) 행록 3-44, “天用雨露之薄則 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 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 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惑有善惑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17) 이정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2), pp.186-191 참조.

18) 공사 1-3,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19)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7-78쪽 참조.

20) 교운 1-9,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에 신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원이 양산된 계기를 밝혔다. 다시 말해, 상극으로 점철된 선천의 인간사와 그로 인한 원의 발생, 아울러 세대의 추이에 따라 양산되는 원의 확대가 천지인 삼계를 가득 채움에 따라 오늘날의 참혹한 재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²²⁾

증산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 질서의 근본적 재편, 나아가 우주 질서의 근원적 개혁인 천지공사(天地公事)로 이어진다. 진단의 결과가 상극에 의한 원의 발생으로 전제됨에 따라 증산의 처방은 자연스레 이 원의 해소방법으로 귀결된다. 증산이 해소하고자 했던 원의 범주는 보통 무교(巫敎)에서 행하는 인간 내재적 원의 해소뿐만 아니라 외계사물 간에 발생하는 자연계의 원, 더욱이 형이상학적 측면의 신명계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즉 해원(解冤)을 통한 일련의 역사를 통해 더 이상의 원이 맺히지 않고 상생(相生)이 지배하는 종교적 이상세계를 제시한 것이다.

증산이 제시한 이상세계는 선경, 낙원, 후천, 지상선경, 지상천국, 후천선경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된다. 그는 이상세계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는 지극히 풍족하여 빈부의 차별이 없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조화로써 창생이 법리에 맞게 다스려져 위무와 형벌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불로불사의 장생을 얻어 쇠병사장(衰病死葬)을 극복하며, 모든 사람의 지혜가 밝아지고 인격적으로 도야되어 모든 나라가 화평하고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게 된다고 전망하였다.²³⁾ 즉, 후천선경은 정치적 안정과 만인평등이 실현된 인존의 시대이며, 경제적 안정과 경제정의가 실현된 풍요의 세계이고, 사회·문화·종교적 갈등이 해소된 통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²⁴⁾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담(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

- 21) 권지 2-37,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 22) 예시 8.

- 23) 예시 81,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범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욕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 24)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61쪽.

증산의 이상사회론에서 특기한 점은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고, 비상천(飛上天)을 임의대로 하며, 과거·현재·미래와 시방세계에 통달하게 되는 도술문명의 사회라는 점이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 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
 란 구절을 외워 주셨도다.”²⁵⁾

위 구절은 미래 사회에 대한 증산의 예시로서 그 함의를 명확히 해독하기는 어렵다.²⁶⁾ 다만, 그가 전망한 미래 사회의 양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문명이 개화되어 전 인류가 물질적 풍요와 혜택을 구가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증산은 이를 문명개화삼천국 도술운통구만리로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를 증산은 해원시대, 신명시대, 인존시대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체계 하에 인간의 역할이 지극히 중대해지는 사회가 펼쳐질 것임을 뜻한다. 증산은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었지만,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²⁷⁾이라고 하여 일의 성공 여하가 하늘이 아닌 인간에게 달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선천의 운행을 신이 주도하였다면, 후천에는 이를 인간이 맡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증산이 예시한 이러한 후천의 모습은 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과학 문명과 관련하여 증산은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뜻 것”인데,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을 끊어지게 한 주된 동인의 하나로 보았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은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인류의 편익에 유익하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²⁹⁾

25) 예시 14.

26) 모악산하에 금불이 능언하고 육장 금불이 화위전녀라는 내용은 대개 증산이 강(姜=全+女)씨성으로서 모악산 금산사의 미륵금불을 통해 인세에 출현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남식,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제21집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14), 3쪽 참조.

27) 교법 3-35.

28) 교운 1-9.

29) 공사 1-35,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좇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좇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고 「서양 사람이 밝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견어야 옳으나」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은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 근을 운반 하리라.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 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³⁰⁾고 하여 앞으로 문명화된 사회가 근자에 도래할 것임을 예시하였다. 다만 증산은 “너희들이 항상 도술을 배우기를 원하나 지금 가르쳐 주어도 그것은 바위에 물주기와 같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니라. 필요할 때가 되면 열어주리니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쓸지니라”³¹⁾고 하여 끊임없는 수양을 당부하였다. 이는 수심(修心)과 정심(正心)이 전제되지 않은 채 주어지는 권한은 사회악으로 발현됨을 당시의 시대상황을 통해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마치 도술을 통해 펼쳐질 것이라는 상상의 세계를 현실에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설명하는 다가오는 세상은 조선조 후기에 활약한 증산의 입장에서는 다름 아닌 도술문명의 세계라 하겠다. 하지만 물질문명의 발전에 정신문명이 조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물질적 풍요와 쾌락에 치우친 배금주의가 사회 전반에 더욱 만연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변화가 급진적이고 개개인의 생활속도가 고속화될 때는 가치관의 진공상태가 형성된다. 하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가치관의 혼란시대인 것이다.³²⁾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문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변혁의 사회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조용하는 새로운 교육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³³⁾ 근자에 도래하리라 전망했던 도술문명 사회를 대비하여 증산이 인성 교육에 주목하였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지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Ⅲ.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이념

교육은 보다 나은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의 지적 사회활동이다. 인류는 문화 전달의 수단인 교육활동을 통해 선대의 지식과 지혜를 이어 받고 또한 그것을 후대에 전해 줌으로써 점차 발전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은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갔으며, 이러한 교육내용

이 창생의 편이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

30) 예시 75.

31) 교법 2-12.

32) 도전님 훈시, 「대순의 빛이 온 누리에 비쳐 나가게 하자」, 『대순회보』 제2호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2쪽.

33) 김정래, 「문명패러다임 변혁에 따른 교육적 과제」, 『한국교육』 제43권 제4호,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6) 참조.

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윤리·가치·존엄성 등에 관계된 정신문화를 탐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등 사물을 이롭게 하는 물질문명을 다루는 것이다.

문제는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윤리도덕적 가치는 도외시되고, 물질만능주의가 점차 강조됨에 따라 인간성 상실이 그 심도를 더해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산은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여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³⁴⁾라고 하여, 지나친 물질 숭배가 결국은 인간의 교만을 조장해 인류를 진멸지경에 몰아넣었다고 역설하였다. 4차 산업혁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증산은 당시의 교육 실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³⁵⁾

먼저 학교의 교육풍토에 대해 그는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봉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라고 하여 인격의 완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증산이 활동한 조선조 후기 사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당시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기강이 흐려지고 매관매직이 횡행하여 탐관오리가 득세하는 시기였다. 무엇보다 조선의 사회문화를 주도해 왔던 유교가 공신력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은 단순히 관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오늘날의 교육실정과 유사하다. 산업사회의 물결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교육은, 더 이상 인격완성을 위한 조력자가 아닌 단편 지식의 축적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인교육이 아닌 취직을 위한 등용문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증산은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³⁶⁾이라고 하여 사회적 도리와 위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사회가 부모·군주·스승의 은혜를 잊고 이들이 제대로의 위치를 찾지 못해 결국 세상이 모두 병들어 무질서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忘其師者無道를 보면, 스승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권위를 경시함에 따라 사도(師道)가 문란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오

34) 교운 1-9.

35) 교운 1-17.

36) 행록 5-38.

늘날 쉽게 볼 수 있다.

아울러 증산은 사회적 경위를 지적하는 한편, 스승으로서의 도리도 지적하였다. 스승이 스승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지 않아 스스로 스승의 위치를 격하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증산은 “有師無學其師何立”³⁷⁾라고 하여 스승이 있어도 학생이 없으면 그 스승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올바르게 교육시킬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가치 인정이 반드시 요청된다. 즉, 서로에 대한 절실한 필요의 요청이 서로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³⁸⁾

또한 그는 “시속에 어린 학동에게 통감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겼나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비로써 성품을 기르려는 것이니 웅패의 술이로다. 어찌 합당하다 하리오.”³⁹⁾라고 하여 교육실행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본래 교육이란 온화한 성품과 올바른 인성으로 도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가 화평해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오히려 시비를 가늠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의 정신과 인품을 길들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증산은 당대의 교육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본궤도를 이탈하여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함으로써 시비의 성품을 길렀고, 결국 사회적 불균형 조장한다고 보았다.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웅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웅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역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⁴⁰⁾

증산은 웅패의 술이 아닌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성인의 도를 제창하였으며, 새로운 교육의 정신과 방법으로서 상생의 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교육관은 천지공사와 연계하여 선천 교육의 폐단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서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원을 풀려는 것”⁴¹⁾이라는 그의 언설처럼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신인의 해원인 것이다. 이는 선천의 천지인 삼계가 원(冤)에 의한 상극으로 진멸지경에 처한 것을 상기해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천의 교육은 그 기본목적을 상실하고 오직 시비와 상

37) 공사 3-40,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 “

38) 김영주,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13쪽.

39) 교법 2-25.

40) 교운 1-16.

41) 교운 1-17.

극으로 관리·복록을 탐하게 하여 세상을 혼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는 전혀 다른 교육법으로 새로운 사회 변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IV.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생윤리

증산의 교육관으로서 오늘날 종단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념은 해원상생이다. 해원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원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고, 상생은 이러한 해원을 통해 발현되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역사는 상극에 의해 지배된 세계로, 원율이 쌓이고 맺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였다. 이에 반해 앞으로 다가올 후천은 상생의 도가 주도하는 사회로서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종교적 이상세계이다. 선천에 만연된 원리가 상극이었다면, 후천은 이와 달리 상생으로 운영되는 세상인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증산은 해원상생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선천의 모든 부정적 결과가 기본적으로 상극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후천으로의 전환은 이를 해소할 반대 이념을 모색하게 한다. 이에 증산은 선천의 낡은 가치관을 대신할 새로운 이념으로 상생을 제안한 것이다. 즉, 상생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사고의 전환인 동시에 지침이다.⁴²⁾

증산이 주창한 상생은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부르짖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의미는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만큼 보편적 의미를 탐구하고 공유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상생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공존공생하는 원리로 대치관계가 아닌 상호조화의 관계를 지향한다. 대립과 갈등의 주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되어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다함께 사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⁴³⁾

4차 산업혁명과 종교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생은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교육여건 속에서 상호 갈등이나 충돌 없이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려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보편가치와 윤리규범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내부의 묵은 갈등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사회로 이행해 가는데 상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듯이 상생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하여 계층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규범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뇌를 10년 이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로봇혁명에 따라 머지않아 현재 직업의 30%이상 없어질 것이라는 옥스퍼드대 연구보고서까지 나왔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이를 포용하는 상생문화는

42) 윤재근,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신종교연구』 제27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2), 142쪽.

43) 송재국, 「21세기 지구촌사회의 이념적 지향」, 『대동철학』 제21권 (부산: 대동철학회, 2003), 24쪽.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다양한 인재를 하나로 아우르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업만이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적, 과학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실로 도래할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현실은 종교교육에서도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종교교육,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종교교과교육에 토론식 수업을 정착하는 것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지성의 역사는 지속적인 정-반-합의 과정 속에서 진화해 왔다. 이는 지속적인 토의와 토론 속에서 성장하고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교육에서 진행되는 일률적인 강의식 수업은 인간 지성의 진화과정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교수에 의해 진행되는 일방적 강의는 학생들에게 수동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성원들 간 소통과 교감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다.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몰아가는 현 수업 방식 하에서 학생들의 지성을 심화시키고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지성과 감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 대학교육에서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피교육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⁴⁴⁾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룬 인재는 상생문화 구현에 용이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상생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배려, 그리고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개발이 요청된다. 소통과 배려 그리고 공감능력은 다양한 시각을 지닌 학생들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토의과정에서 배양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적이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면, 소통을 위한 경청과 배려, 상호 이해를 통한 공감능력이 요청되는 토론식 수업은 대학교육이 지향해야하는 교육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생윤리는 지성과 감성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 사유의 프레임을 토대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재인식과 자기주도적 프레임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생윤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기주도적인 프레임의 구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정과 이를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다. 나와 타인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차이를 인정하게 되며, 차이를 인정하는 습관이 지속될 때 차별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바, 차별에 대한 철저한 경계는 함께하는 상생의 문화가 지향하는 한 단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상생윤리는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과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할 역량임에 틀림이 없다.

44)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연구』 제4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22쪽.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상생윤리를 위해 대학교육이 당면한 과제는 상생윤리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며, 이 부분은 토론·토의식 수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토론·토의식 수업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종교교과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V. 맺음말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한 분야의 혁명적 기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 혁신 기술의 융합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세계의 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면적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직종의 공동화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양산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비극적 서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혁명에 조응하는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을 통해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으로서 상생이념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오늘날에 상호 갈등과 충돌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함께 신뢰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도 상생은 사회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사회로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계층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교육기관에서는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소통을 위한 경청과 배려, 상호 이해를 통한 공감능력이 요청되는 토론식 수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상생윤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기주도적인 프레임의 구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정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의 상생이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요청되는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회보』 제2호.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고남식.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제21집 (포천: 대순사상 학술원. 2014).
- 박기영. 「4차 산업혁명 Industry」. 『전기저널』 (서울: 대한전기협회. 2016.4).
- 김승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주요국의 혁신정책」. 『Entrepreneurship Korea』 Vol.5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서울: 한국정책학회. 2017).
-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_____.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김정래. 「문명패러다임 변혁에 따른 교육적 과제」. 『한국교육』 제43권 제4호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6).
-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나권수 · 윤재근.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박규태. 「일본의 현대종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신종교연구』 제3권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0).
- 송성수.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STEPI Insight』 제207호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송재국. 「21세기 지구촌사회의 이념적 지향」. 『대동철학』 제21권 (부산: 대동철학회. 2003).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조선후기 종교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석」.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 _____.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신종교연구』 제27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2).
- 윤재근 · 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연구』 제4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2.
- 이주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선진화정책시리즈』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17.2).
- 임호.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대응 방향」. 『부산발전포럼』 제164호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2017).
- 한동승.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 제42호 (서울: 인문콘텐츠학회. 2016).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22일 심사일: 2017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2일
 연구자소개: 나권수

- ① 전공: 한국신종교, 대순사상 / 소속: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대순사상, 종교교육
- ③ 주요논저: 「한국 신종교의 개혁사상에 관한 고찰」, 「근대 한국 신종교의 이상세계
 관념과 종교민족주의」, 「한국 신종교의 선도사상 연구」,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진리회의 정신개혁론 연구」, 「대순진리회의 인성
 교육과 활성화 방안」
- ④ E-mail: luozi@daejin.ac.kr

연구자소개: 김영주

- ① 전공: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 ③ 주요논저: 「증산 수양론에 있어 욕망 해석의 문제」,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대
 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
 로운 비전」, 「증산 수양론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우리시대 양극화 현
 상 극복을 위한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역할과 전망」, 「대순진리회에 있
 어서의 치유와 화합」,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를 통해 본 제주도민의종
 교심에 관한 연구」,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 ④ E-mail: eureka0710@daejin.ac.kr
-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won-Soo Na · Yeong-Joo Kim

Daejin University

With an increased social interes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many discussions being made about possible social reformative changes and plans to deal with financial crisis that could be caused as the consequence. Also, major countries have already begun to make active movements to lead a new change in the world.

However, some people are questioning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le some are raising their voices over the negative effects. One of the major concerns is job reduction. It seems obvious that job reduction will not only lead to the downsizing of labor market, but also the bigger polarization between occupations. The widening of income gap will be followed by deepening of inequality. Furthermore,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nvenient living style could be shared by all people. Above all, the rapid technical development could cause social alienation for neglected people who failed to catch up with the social changes. As the result, it can bring negative effects such as social and cultural exclusion.

Now is the time to establish a system of counteractive measures that could prevent beforehand any dama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et all members of the society have the benefit of the advancement. In this context,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step would be the change of education policy. Wh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em to be currently evoking intense competition among nations, the capacity of human resource will be one of the major variables. But our current education is optimized for raising humans who are suitable for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regard, we need a groundbreaking transformation and reformation of education polic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dea of Sangsaeng(Mutual Beneficence) for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The society today, when many different values coexist in much complex interconnections, requires an universal value by which people can trust and respect each other and realize a harmonious society where there are no mutual conflicts or confrontations. Fac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dea of Sangsaeng can be a value and ethical rule that enables people to resolve conflicts and communicate openly regardless of their classes and evolve into a new societ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ey 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aesoonjinrihoi, religious education, Jeungsan, Sangsaeng(Mutual Beneficence)